

# 東大新聞

1998년(불기 2542년) 5월 25일(월요일) 제 1250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경만 / 편집장 최정식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0561)770-2057

가자이언  
김두길

선하지 못하면서 선한 것 같아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하여 괴로움을 가지고 즐거운 모습을 하는 것은 미친 사나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규경 · 세속존 278절

본사주최 고교생백일장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려



본사 주최 제36회 전국고교생 문학백일장이 지난 23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렸던 예선을 거쳐 1백9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백일장의 각 부문별 주제는 △사·탈, 김포이 흐르듯이 △수필-그 여름, 벽 등이었다.

심사결과 시부문은 김민을(양천여고), 수필부문은 임여빈(석곡고3), 소설부문은 이신애(안양고3)가 각각 장원을 차지했다.

심사는 △사·탈(문과대 국어국문학부 석좌교수, 시인), 홍신선(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시인), 최순열(사범대 국과교 교수, 시인) △수필-홍기삼(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문학평론가), 김선희(경주대 인문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정태실(사범대 국과교 교수, 본사주최) △소설-한용관(사범대 국과교 교수, 소설가), 김용철(본교 법인사업부장, 소설가), 정채봉(본교 겸임교수, 월간 '샘터' 주간, 동화작가) 씨가 각각 맡았다.

한편, 당선작품은 본지(1251호)에 게재된다.

중구청에 성금 기탁  
관내 불우이웃돕기 위해

학생회(처장=오정수 · 산림자원학) 학생과 백상원(단장=김동주 · 전기공학3) 지난 14일 열린 '제17회 전국대학생연합대회'의 수익금 2백41만8천원을 중구청(구청장=김동철)에 전달했다.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사 용될 이번 기금 기탁과 관련해 문목대 학생회장은 "매년 개최된 이번 대학생연합회를 단순한 행사로 여기기보다 뜻깊은 행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총25여억원 장학금 지급  
교내 장학은 21억원

장학과(과장=문옥래)는 98학년도 1학기 장학금 2억7천9백71만2천원을 2천6백14명에게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은 총2천3백99명에게 20억7천5백81만1천5백원이고, 외부장학회나 동문들이 지원하는 교외 장학금은 총3백5명에게 4억3천9백15백원이다.

## 총대, 학부제중심 회칙개정 초읽기

### 총여문제 이후 본격 논의...전체 학내구성원 공감대 형성 필요

지난 96학년도부터 학부제가 시행된 이후 제30대 총대의원회(의장=신현찬·연영4 이하 총대의) 학부제중심 회칙개정안을 다룬다. 학부제중심 회칙개정안을 다룬다. 학부제중심 회칙개정안을 다룬다.

지난달 28일, 총여학생회와 총대의원회(의장=신현찬·연영4 이하 총대의) 학부제중심 회칙개정안을 다룬다. 학부제중심 회칙개정안을 다룬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29대 총대의원회 산하에 회칙개정작업을 위한 '회칙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안전의결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무산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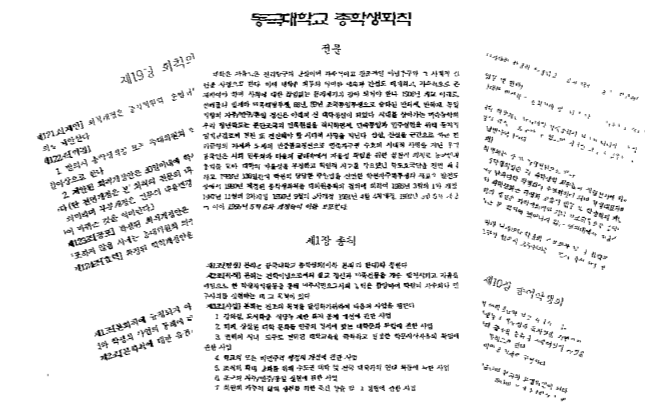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총대는 논란이 되어온 학부 학생회장의 대표적 인정을 거부 부분을 포함한 학부학생회의 전반적인 회칙문제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대의원회'의 상호 위상 문제, 본교 재학생들의 학생회 재인식과 공유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회칙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제는 어릴 가나 풀치던터 리 아님니까?"라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의 지적이 아니라도 학부 학생회문제에 그 동안 줄기 차게 제기되어 왔으며, 각 대학 총학생회들도 회칙개정이나 철해 운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타 대학의 경우 성공관례는 오는 6월초부터 회칙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한양대는 현재 학부학생회에 대한 부분이 상당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후속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본교 경우캠프는 지난 6일 열렸던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98학년도 학생회칙을 일부 개정할 바 있다. 학부 학생회에 관한 조항인 제10장 49조를 보면 '학부 학생회장은 각 학부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이 된다'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인 제10장 49조 1항과 2항에는 각각 '학부 학생회장은 각 학부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고 소속 단과대 운영위원이 된다'와 '학부 학생회장은 학부 대의원회 감사 대상이 된다. 단,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고 명시해 학부학생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회칙개정작업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교 총학생회칙 제19장 '회칙의 개정'에 따르면 제안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라고 하는 큰 고비를 넘겨야 한다. 지난해의 작업이 무산된 것도 바로 대의원총회가 성사되지 못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 작업을 내다보 시 난관이 예상된다. 또한 회칙개정에 대해 학교측의 준비가 전 무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애요인 이 될 것이다.

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학부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 23년후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재학생들이 겪었던 혼란을 후배들이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뛰고 있는 간부들뿐 만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경주캠 학생대표 · 총장과의 간담회

## 학교 · 학생간 대화 분위기 조성 긍정적

### 학부제문제등 이해 얻길려...“경주캠 자치권확보 선행돼야”

경주캠에서 지난 95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장간담회가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박재욱·법4 이하 중운위)의 요청으로 지난 21일 교직원 식당에서 중운위원들을 비롯 50여명의 일반학생들도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운위는 지금까지 3차례 간담회 성사 및 학교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질의서와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일민화우 릴레이' 등을 통해 성사된 이번 총장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관 건립 마스터 플랜 제시 및 행정의 학생참여 보장 △학부제 폐단과 향후전망 대대적 검토 결과 공개 △장학제도 개선 여부 △한의원대 본과의 서울상경과 의료봉사대 대한 지원 등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부용(관경4) 부총학생회장이 제시한 장학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99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을 위한 장학제도 개편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대의 의대의 경우

기초교수 확보,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임상실습보장 등이 실질적으로 결정됐다. 본관건립과 관련된 질의에서 송석구 총장은 "본관 건립은 2003년까지 정각원 연못 뒤편을 중심으로 2천 5백여평의 부지에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학생들의 행정 참여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학부제와 관련한 공개질의에서 "강의실 부족과 학생들이 인 기학과에 편중됨으로 기초학문 이 도외시 되는 실정이다"며 "시설과 교육의 여건면에서 경주캠만의 특성화된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학생대표 자의 질의에 송석구 총장은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학부제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위한 제도 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학생들과 학교측간의 이해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반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대대적 검토 결과의 주요 사항은 △6개학부 1백점 만점중 평균 86점 △연구과제 수주실적

상당수준 등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는 △실험실 혼용이용 △경주캠의 복지부분 미비 △도서관 장서부족 △예체능계의 교수연구 실적 부진 등이었으나, 문서의 직접공개와 관련해서는 "구두로써 어느정도 이해가 됐으리라 보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서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식적인 공개를 둘러싸고, 학생측과의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총장간담회 이후 중운위 위원들은 "학교측의 성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문서화 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성과물은 없었다"고 자체평가를 내렸다. 또한, 장시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의 비효율적인 업무시행 △사수율 · 경주캠간의 교류 부족 △의대 · 한의대를 제외한 질의사항에 대한 무성과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일반행정 업무에 대한 부총장의 권한확대를 비롯한 경주캠만의 자치권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장희정 기자

## '자비의 벽돌쌓기' 기부금 잇달아

### 불교계 · 동문등 6억 1천만원 이상 기탁

불교종합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에 불교계 및 동문들의 활발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기공식이 열렸던 지난 16일에는 2천7백여 만원의 기금이 접수되었고, 무동장입금으로 5천 6백여만원을, 일본의 자매대학 등이 동참금으로

약 1억원을 기부해 현재 자비의 벽돌 총 기부금은 6억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린 '불교미술품 특별작품전'의 수익금인 2천 7백여만원도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키르기즈 국립대학 교환학생 선발

### 28일까지 원서접수... 미시건주립대 등도 모집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98학년도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종합대학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종합대학의 개설 전학과를 대상으로 모두 5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현재 5학기 이상을 마친 학부생이나 대학원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선발된 학생은 파견기간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파견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을 인정받으

며,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종합대학은 선발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비를 제공한다. 선발방법은 △학교성적 50% △면접점수 50%이다. 학술교류부는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종합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미시건주립대학, 중국 남경대학, 대만 중국문화대학 등에도 오는 2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아 교환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과 관련해 학술교류부의 한 관계자는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종합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선발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본교 선상구 학생부처장

### '국제시민스포츠클럽피어드' 유치

한국체육진흥회 회장인 본교 선상구 학생부처장이 지난 22일 영국에서 열린 국제 시민스포츠클럽총회에 참석하여 오는 2천3년에 열린 '국제시민스포츠클럽피어드'를 유치하였다.



한국체육진흥회 회장인 본교 선상구 학생부처장이 지난 22일 영국에서 열린 국제 시민스포츠클럽총회에 참석하여 오는 2천3년에 열린 '국제시민스포츠클럽피어드'를 유치하였다.

동대신문 기획 광고



## 6기 한총련 출범식 평화로운 개최를 김대중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쇠파이프와 쇠도리개  
돌맹이와 최루탄  
전투모와 마스크로  
대치한 학생과 전경들은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동대신문사

# “도서관 컴퓨터로는 자료 검색을”

## 채팅학생 제재조치 강구...정보이용 효율성 기대

도서관 1층에 들어서면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대체 뭘 이리 열심히 하는 것일까 하고 모니터를 들여다 보면 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채팅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본교 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된 컴퓨터는 35대. 하루에도 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가 부족한 관에 이곳에서 채팅을

하며 몇 시간씩 컴퓨터를 독차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점차 필요한 정보를 찾기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자료 검색을 위해 도서관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한 학생은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도 10분이 넘는 학생들이 채팅을 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학교측에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도서관에서 대책 강구에 나섰다. 컴퓨터 10여대를 '채팅, 게임 전용'으로 정해놓고 이곳 외에 다른 컴퓨터에서 채팅을 하는 학생에게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서관의 이동규 문헌·정보계장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자원을 맡겨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재 조치 외에도 도서관

1층 로비에 컴퓨터 10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제재 조치나 컴퓨터 증설과 더불어 지난 3월 개장한 멀티미디어실의 컴퓨터 30여대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 이용에 대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조치나 시설을 증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공공물을 이용하는 마음 자체의 변화일 것이다.

남대철 기자

### 방중 외국어특강 실시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매·영분학)은 여름방학 중 외국어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1.2차로 나뉘어 치러지며 1차는 다음달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특강과목은 영어회화 기초·I·II·III 및 TOEIC과 Listening으로 예년에 비해 영어회화 한 강좌가 추가됐으며 수강 신청생이 적은 English Composition은 폐강됐다.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외국어교육원에서 받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 LAN 접속이 빨라진다 전화선 하나로 통합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관리처(처장=임기현·컴퓨터공학)는 학교의 LAN 접속시 사용하는 전화선을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LAN 접속시 총 2회선을 사용해야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모두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것을 대표전화(260-8906) 하나로 묶음으로써 자동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고 이용범 교수 책기증

본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고 이용범 교수의 유가족들이 지난 18일 도서관(관장=임호일·독문학)에 고대사 관계서적들을 비롯한 개인 소장 5천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 교수회, 지난 22일 대의원회 소집

## 금주중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교수회(회장=김기억·사회학)는 '불교종합병원 건립 실행회'가 결의·응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미흡함을 느끼고, 지난 22일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서울·경주 전체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조사'와 관련해 3시간여의 회의 끝에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설문조사를하기로 결정했으며, 설문지 내용 작성 및 배포는 이번 주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회장단에서 작성한 가안을 중심으로 동국학원의 발전이라는 전제이래,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포커스 연구소가



사진은 지난 22일 교수회의실에서 대의원회를 하는 장면.

는 병원건립 필요성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고 있어 학교발전과 경영

인 병원건립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밝혔다.

# 여름창작교실 작품 모집

다음달 12일 접수 마감

한국문화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98학년도 '여름 창작교실'을 개최하고 이에 따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창작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여름 창작교실'은 선배 문인과 재학생이 함께 참가하여 동국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재학생들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

# 졸준위 모의토의 실시

오는 29일, 응시비 3천원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억·물리4 이하)는 오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모의토의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토의시험은 시사영어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졸업준비위원회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응시비용은 3천원이며 장소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 증명서자동발급기 도입 “학생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 예산확보 어려움...학교당국의 배려 필요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시간내서 왔는데 헛걸음했네요" 직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증명서 때문에 토요일에 본관을 찾은 한 졸업생은 당혹있는 문을 보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토요일에 학교를 찾았으나, 본관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정상근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졸업생들은 증명서를 한번 발급 받으려면 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타대학의 경우,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숭실대, 경기대 등은 몇몇전부터 증명서자동발급기를 도입해 학생들이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 김태완(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3)군은 "신청절차없이 원하는 때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경기 지역의 대부분 대학에는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본교에는 단 1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자동발급기 또한 없는 관계로 발급자의 50%가량이 졸업생들은 이와같은 불편함에 불만을 털어놓는다. 더구나 하루평균 6백여통 가량 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취업시즌에는 담당부서의 전 직원이 이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일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본교에서도 자동발급기와 관

련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96년도에 학적과에서 증명서자동발급기 설치를 추진했으나, 동국종합정보시스템 2545(DRIMS)가 개발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시행단계에서 무산된 적이 있다.

물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보마방에 출력기를 연결하면 성적 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직인이 찍혀 나오지 않는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신입사원의 면접을 담당하는 신라교역의 총무부장은 "직인이 없는 증명서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복사본일 경우가 많다"며 "신뢰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 직인이 없을 경우 취업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자동발급기 도입과 관련된 학적과 이광규계장은 "자동발급기가 있으면 민원인과 업무의 효율성 등 모두에서 잇점이 있다"며 "협제 발급기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MF시대에 '학교정책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비용 또한 적지 않아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명서자동발급기 설치의 전체 학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박영실 기자

# 회전무대

## 성차별

O... "남자만큼만 주세요"

요즘 학내 식당에서 배식에 대한 여학생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아본즉, 학내 식당 아주머니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밥의 양에 현저한 차이를 둔다.

이는 여학생은 적게 먹을 것이라는 아주머니의 선무늬 판단이니, 이에 식당 앞에서 한 여학생 왈 "밥 많이 먹고 싶은 여학생은 남장(?)하고 오세요"

## 원샷

O... 숨어있는 분수를 찾았다!

지난 19일 학림관 앞의 톰비너 분수가 첫 시험작품을 해 학생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인즉, 경수에 물조차 고여있지 않아 분수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물을 뿜어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뒤로는 물 뿜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에 분수를 보던 한 학생 왈 "한번 만 터진다. 원샷! 톰비너 분수"

## 추차난

O...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학내에 추차난 차 때문에 학생들이 짜증을 더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도 없이 뿜어내는 열기는 한 여름의 무더위를 연상시킬 정도다.

심지어 후문으로 올라오는 길도 차로 점령되어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쳐버린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차 실컷은 있는데 사람 다닐 곳이 없네"

## 연론탄압

O... "나가지실시오"

지난 22일에는 밀실회합(?)이 오전·오후 연이어 있었다.

오전에는 타워호텔에서 총장과 교수회와의 간담회가, 오후에는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조사' 시행을 놓고 교수회가 소집되었는데.

위낙 중요한 사안이라 본사에서 취재를 갔으나 간담회에서는 "그날 일상적인 자리일 뿐", 대의원회에서는 "얘기가 길어지니 나가달라"며 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취재 거부, 또 하나의 연론탄압입니다!"

# 생자내 악부설 일어 관절간 공간투쟁 결과

생자내 학생회(회장=성나현·응생 3)는 지난 20일 해오관 앞에서 생명자원과학부실 입방식을 치렀다.

이 학부실을 얻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학교측과 관절간 공간투쟁을 벌인 생자내는 올해 2월말 공간을 내주겠다는 학교측의 약속을 받아내고, 이번엔 입방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새내기 문예단의 문예공연 △고사 △학부학생회장의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입방식에서

성나현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며 "다른 학부들도 문제가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각원, 법문집 발간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3일 법문집 '물 속의 물고기가 부말라 한다'를 발간했다.

이 법문집은 지난 3년 동안 정각원 고승초법법회의 강연내용을 번안산스님이 요약·정리한 것으로, 정각원은 현재 이것을 전국교도소 및 군법당에 약 1천여권을 기증하고 있다.

# 일반휴학원 접수

1. 신청기간 : 98. 6. 17(수) ~ 19(금), 3일간
2. 신청자격 : 98학년도 1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1부.
6.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2학기)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정됨.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 무 처 장

# 여름 계절학기 수업 실시

1. 개설대상 교과목 : 산사의 생령, 수영, 사이버 창작입문등 98학년도 1.2학기·제철학기 교과목
2. 수업일정
  - 가. 98. 6. 22(월)~7. 13(월) - 16일간
  - 나. 월-금요일 수업 실시
  - 다. 산사의 생령은 2백3일간 사찰에서, 수영은 토·일요일 오전에 수영장에서 실시
  - 라. 사이버 창작입문은 위기관중 인터넷을 통한 원격강의
3. 강좌개설 기준인원
  - 가. 4명이상 전공교과목
  - 나. 10명이상 기타 모든 교과목(단, 교양선택중 산사의 생령, 수영은 2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절차
  - 가. 수강자격 : 98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으로서,
    - 1) 조기졸업 희망자
    - 2) 재수강자
    - 3)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점교류 희망자
    - 4) 일반선택 희망자
    - 5) 편입학생
  - 나. 신청절차 : 6학점 이내(예 제철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성적처리
  -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장학금 신청 및 학사정례와는 무관함
  - 나. 4학년 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교양 및 1. 2. 3학년 전공)을 상대평가함
  - 다. 'F' (과락) 성적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 등재함
  - 라. 재수강시 신청한 과목의 성적은 자동취소됨에 유의
6. 수강신청
  - 가. 수강신청기간 : 98. 5. 26(화)~5. 28(목) - 3일간
  -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 서울캠퍼스 : 교무처 교무과(이부대학생은 이부대학 교학부로 신청)
    -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과
  - 다. 제출서류
    - 1) 계절학기 수업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 2) 사진 1매(4cm×5cm)-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으로 수강신청서 부착용
  - 라. 수강료
    - 1) 개설교과목 1학점당 75,000원
    -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7.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 발표 : 98. 6. 4(목)
8. 수강신청 정정기간 : 98. 6. 8(월)~6. 9(화) - 2일간
  - x. 최초 수강신청지중 폐강, 시간충복의 사유외에는 정정불가
9. 수업시간표 발표 : 98. 6. 12(금) 예정
10. 사이버 창작입문은 영상제작, 애니메이션, 광고, 웹디자인 등의 내용을 5인의 담당자가 원격강의함

교 무 처 장

# 복학·재입학원 접수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98년 6월 12일(금) ~ 16일(화)
2.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 전 역 자: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일이 기계된 주민등록 초본 1부(전역증사본불가)
    - 2) 전역 예정자: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교 무 처 장

# 모의TOEIC시험 실시

취업 계수생이 많아지는 현실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의 토익평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모의 TOEIC 시험
  - 가. 시험일시 : 6월 3일, 오후 5시30분
  - 나. 대 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 다. 시험장소 : 중앙당(본관)
  - 라. 접수기간 : 5월 25일~30일, 오전10시~ 오후5시
  - 마. 응 시 료 : 3,000원
  - 바. 접수장소 : 중앙도서관, 학생복지위원회(다량관 지하)
2. 성적분석표 배부
  - 가. 개인별 성적평가 분석표 : 개개인에게 우편발송

30대 총학생회 산하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편입학제도 문제점과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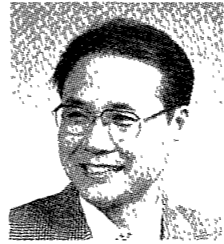
시사논단

사립학교법 개정해 교육 공공성 확보

96년 이후 대학들의 편입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다. 95년에 3천7백여명에 불과하던 편입학생수가 96년 2만4천5백여명, 97년에 5만여명을 거쳐 올해는 1학기엔만 무려 4만6천여명(학사편입 1만명 포함)에 달한다.

인은 교육부가 지난 96년부터 편입학 정원을 늘려준 데에 있다. 편입학 정원의 기준이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재학생 + 휴학생)을 제하는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입학정원에서 재학생만을 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과연 교육공공성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인가?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편입학제도는 학생의 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치원 민교협 교육위원장 강원대 사학과 교수

둘째로, 대학간의 교수교류, 학생 학점교류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필요 없는 편입학은 줄어든다. 셋째로 편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정과 범죄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설

평화적 출범식 성사시키자

지난 22일, 영남대 총학생회장 손준혁군이 외대 고회철군과 경찰을 벌인 결과 앞으로의 표창로 한총련의장으로 선출됐다.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와 의장선출이 계속 무산되다가 늦게나마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총련이 정부의 '이적단체' 규정과 더불어 시민 및 가장 큰 지지기반인 학생들에게까지 그 정당성과 운동방향에 있어 의문을 받아온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지적된 한총련의 과오와 실패들을 새로운 6기 한총련이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6기 한총련은 의의선출을 계기로 체계정비와 함께 새로운 노선을 가다듬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학 등록인원의 부피가 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 서울 모대학의 경우 올 1학기 등록인원이 1만6천6백60명으로 정원보다 10.3%(1천7백11명)이나 많았다.

정부는 이렇게 편입학을 조정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교육체제를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이러한 편입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대학의 서열화를 철폐하고 대학 사이의 차등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수준은 교수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수1인당 연구비와 연구실적 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불심검문 엄연한 인권침해

"잠자는 국민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운동단체들과 경찰 각지의 대학에서 권리찾기. 권리를 위한 법적 투쟁의 일환으로 '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학으로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을 범죄지하여 검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가 상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거동이상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이상자에 대해서도 불심검문은 엄격한 요건하에 행하여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수상하지도 않은 일반인에 대하여 사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력적 구제를 인정하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이 된다.



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불심검문은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작용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작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차원에서 위법한 불심검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스스로 합리적인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잠자는 국민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는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경주캠 학부제 논의 활성화돼야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각 대학별로 학부제 전면화대 실시를 둘러싼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경주캠에서는 그런 논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캠의 경우 교수회에서 주최한 공청회 이후 학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형편이지만, 경주캠의 경우는 서울캠처럼 교수회 중심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런 공청회의 마당이 단속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학부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대안까지 강구할 수 있는 중간평가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불심검문이란, 좁은 의미로는 경찰이 거동이상자·범죄의 피의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임의 동행·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흉기 소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미법계의 'Stop & Frisk' 법리에 따라 흉기 소지여부는 휴대품(가방)의 결만을 믿는 정도로 그쳐야하고, 휴대품(가방)의 내부까지 소지품 일반에 관해서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강 - IMF시대에 외국인 기업체를 잡아라 - 외국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특강을 실시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환학생 선발 1. 선발분야 및 인원 가. 선발분야: 대만 중국문화대학 개설 전학과 나. 선발인원: 3명(학부)

98학년도 컴퓨터 여름특강 과 목 강 사 일 시 기간 모집인원 정 소 한국프로그래밍 오승현 98.6.29~7.3 5일 50명 컴퓨터실실용GC

98대학원 춘계학술제 1. 일시: 98년 5월 25일(월)~5월 29일(금) 2. 장소: 학술관(K212, K214), 대학원학생회 세미나실

특별 강연회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특별 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교류처장 1. 선발방법 가. 학교성적(20%) 나. 1차-중국어 시험(필기 20%·회화 20%)

컴퓨터교육원 과 목 교 재 명 출 원 시 지 저 자 구입처 가격 Visual C++(초급) Visual C++ 21년 완성 인포·북 파워제(북) 대원출판 15,000원

제14대 대학원 총학생회 발 표 자 발 표 제 목 발 표 일자 정 수 장 소

동약록



성년과 민주

"경찰차 불렀으니 경찰서 가서 얘기하러가나?" "그래? 한번 해보자. 너 오늘 잘 걸렸다!" 성년의 날인 지난 18일 밤. 술에 만취한 두 무리의 학생들이 선물로 받은 것 같은 꽃을 손에 든 채, 주위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다툼을 한다.

성년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낸 사람도 있을 테지만 결코 기쁘지만은 않은 성년의 날의 또다른 모습이다. 또한 이날은 18주년을 맞이한 '광주민주항쟁'의 기념일이기도 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민중적 항쟁을 벌였던 역사적인 그날이다. 그러나 국민적 영웅인 정권교체가 50년만에 이루어졌다는 미명하에 책임자들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아직도 당시의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5·18기념일이었다.

기획-통일 시리즈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IMF시대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2. 식량난을 통해본 북한의 실상
3.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진단
4. 대학생·민간단체의 통일운동 움직임

민족모순의 현실

남한의 외환위기로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체제위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으나 춘공기를 맞은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업은 지난 5월 14일자 한겨레신문 대담에서 북한에서는 매년 1백여만명씩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남쪽에서 연간 8조여원 규모의 음식쓰레기 처리문제가 골목하고 있을 때 북쪽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현실, 남쪽의 과잉 생산된 감자가 썩어 갈 때 북쪽의 인민들은 굶어죽는 현실, 이러한 민족모순을 보면서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권력 투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냉전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대립·경쟁을 지속함으로써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남북한

생존 위협받는 북 식량난 개혁·개방만이 살 길

공히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쪽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구걸'해야 생존이 가능하고, 남쪽은 IMF관리체제에서 외화를 '구걸'해야 국가부도를 면할 처지에 있다.

북한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옛 소련, 중국 등과의 불물교환 형식의 구상무역이 어려워지고, 우호가격(시장가격의 50~70%)을 통한 중·소의 경제지원 중단, 지역경제생각인 경제건설 노선의 한계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오던 중 실상가상으로 수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쳐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체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당국은 일찍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1992년을 '대농의 해'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등 이른바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하고도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것은 농업집단화와 공유제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영농구조와 다락밭개간정책의 실패, 비료·농약 부족, 가뭄·병해·우박·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이 계속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1994년 우박피해와 1995~96년의 수해 그리고 1997년의 심한 가뭄은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량난 등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족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인데, 북한은 지역경쟁 경제의 한계로 만성적인 외화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하지 못하고 외국의 경제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량부족실태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식량재고가 바다수준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긴급한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 농업위원회의 부국장 차진석은 1월 20일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서 북한의 연간 최저식량 수요량은 4백22만톤인데 이가운데 60% 이상이 부족하여 70만톤의 식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의 큰물피해복구위원회는 3월 2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올 1월1일 현재 식량재고량이 16만7천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3월 중순경이면 식량재고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8양곡수급 평가에 대한 국제기구나 통일부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FAO 유엔식량농업기구)나 WFP(세계식량



사진=한겨레21

계획)는 총수요량을 4백61만4천톤으로 잡고 외부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제외하면 순수 부족량은 1백1만톤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도 총수요량을 4백76만4천톤, 총생산량을 3백48만9천톤으로 판단, 1백27만5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97 양곡년도 원조미이행분 24만1천톤을 빼면 순수부족량은 1백9만4천톤 정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식량난 실태에 대한 발표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식량난 해결보다 정권유지에 급급

북한은 현재 내부 지원고갈에 따른 원천적인 공급 부족으로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어 따라 지역간의 식량공급의 심각한 편차와 암시장이 번성하는 등 식량부족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신념체계의 붕괴, 김정일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회피와 해결되지 미흡 등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승수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한다.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을 '인질'로 하여 위기조성전략과 '벼랑 밑 전술' 등을 구사하면서 정권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 김정일이 당총비서로 추대되던 해였으나 당과 국가기관의 공식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주석, 인민무력부장, 정무원총리 등 북한의 주요직책이 공석으로 있다.

김일성 사후 현재까지 '관안도 일민'의 상속자' 김정일은 탈인격화된 '후계수령'으로서 북한을 통치함에 있어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소수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비공식 체제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일은 당총비서 추대 이후에도 '군사중시정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혹통치'를 지속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살 길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위기가 지역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때 경제회생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개방정책이 실패를 거두려면 체제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지체(time-lag)'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가 체제개혁을 뒤로 미루고 '유혹통치'를 지속할 경우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도 외부세계의 도움없이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개혁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개방지역을 극히 제한하고, 개방속도를 늦추면서 '붉은 기사상'을 제시하고 사상전과 속도전 등의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므로 북한주민들의 희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정일이 체제개혁을 추진하려면 먼저 또는 '사상해방' 또는 '신사교'를 통해서 인민들에게 수령숭배와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의 극단적인 주체노선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회발전단계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완성준비론'으로부터 후퇴하여 사회주의 '초기' 또는 '초급'이라는 새로운 발전단계 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본가의 일정부분의 '진보적 역할'을 인정하고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원리를 접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상호 배타적인 경제체제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는 북한지도부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북한당국은 그들이 처한 현재의 난관이 북한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큼 구조적인 쇄신이란 점을 깨닫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도의 과학기술혁명시대에 지역경쟁은 대외적인 중추는 면할지라도 외부세계에서 개발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없어 외부세계와의 경제적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붉은기사상'을 고수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풀죽'을 먹일 것이 아니라 붉은기를 내리고 체제개혁과 개방을 통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 유환 사파대 북한학과 교수

제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 군 당선

경찰과의 숨막꼭질 대의원대회 성사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장연합(이하 한총련)이 건설됐다.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영남대에서 개최하기로 한 한총련 대의원 대회는 경찰의 제6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대회 개최가 원천봉쇄된 바 있다. 경찰의 원천봉쇄는 대의원 대회 참가를 금지하여 학생운동조직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대의원 대회가 40여일만에 다시 치러져 그 의의가 새롭다.

지난 22일, 각 지구총련의 지정대학에 투표소를 만들어 한총련 의장 선거를 치른 결과 한총련 임시의장을 맡았던 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이 고회철(외대)을 이적한 총학생회장(찬성 6백75명)을 제치고 한총련의장에 당선됐다.

의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19일 한총련은 경희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부터 22일까지 의정선출 및 총노선 토론 등 전국에서 대의원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으며 선거 유세는 바다에 유세 및 전국 순회 유세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강령과 규약 및 총노선 토론은 나무누리(평화) '국민의 힘' '국민의 힘'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회의를 진행하여 최초의 사이며 대의원 대회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총인원 1천3백82명중 사교 2백37명을 제외한 재적대의원 1천1백45명 중 6백75명이 투표한 결과 손준혁후보 5백56표, 고회철 후보 1백14표, 무효 5표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특별기구는 조국통일위원장이석주 고대 서장관 총학생회장(찬성 6백14표, 반대 52표, 무효 8표, 기권 1표), 학원자주추진위원장 박종철 경상대 총학

생회장(찬성 6백19표, 반대 50표, 무효 8표, 기권 1표), 한총련 대변인 서총련의 장인 김현배 경기대 총학생회장(찬성 6백8표, 반대 58표, 무효 7표, 기권2표) 등으로 정임 인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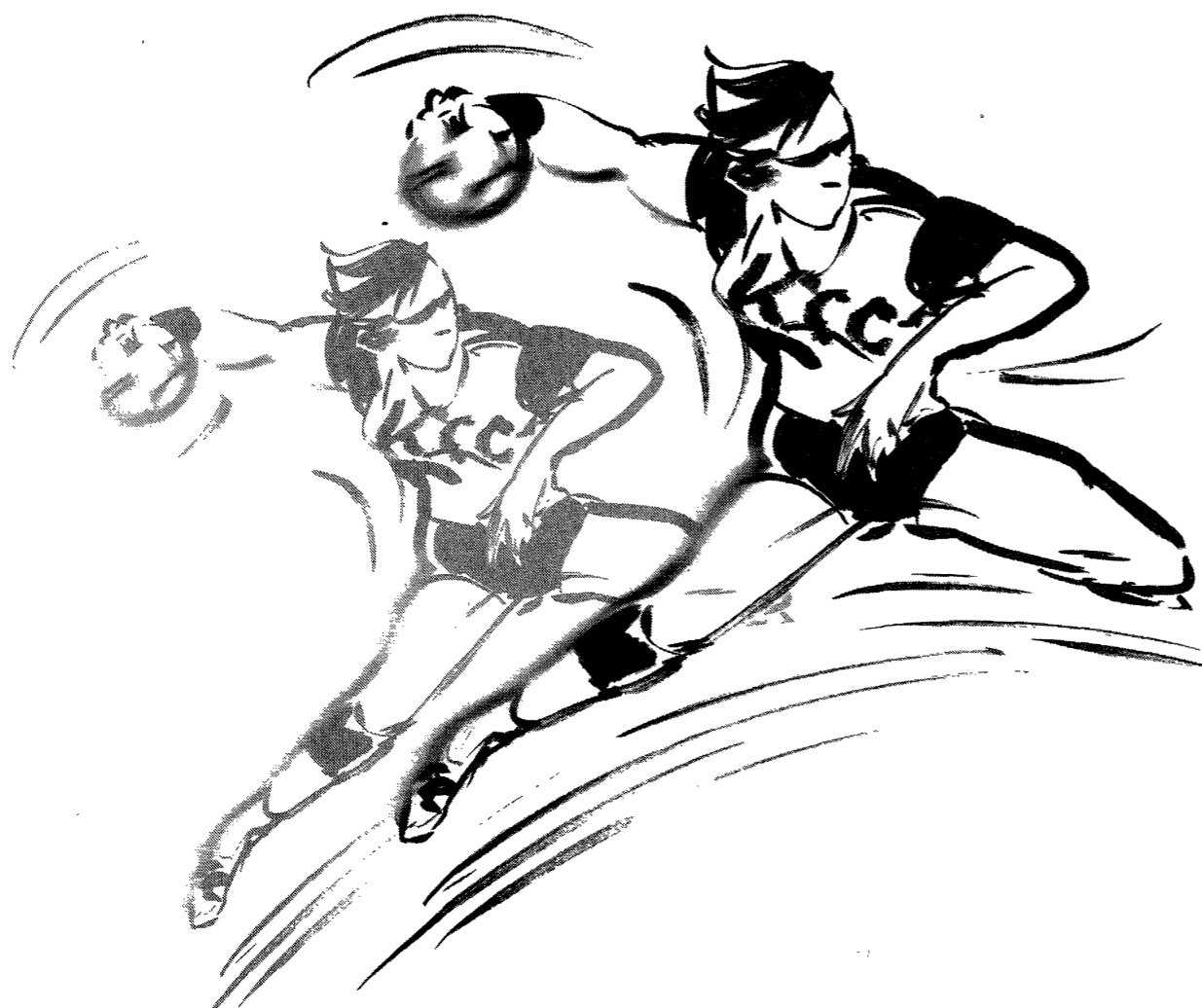
한신대, 영남대, 고대 서장관퍼스 등 16교 4천 명이 참석한 전국대학 경찰의 불심검문과 첩탐로 투표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한총련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평화적인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선장을 잃고 표류하던 한총련이 새로운 선장을 추대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일반 대중과 함께하는 학생운동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

오인택 기자

KEUMKANG CHEMICAL CO.,LTD. KOREA CHEMICAL CO.,LTD. KEUMKANG CONSTRUCTION CO.,LTD.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끝없이 도전한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생각으로는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한 한국 핸드볼팀, 40여년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으로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온 KCC - 건축자재의 대명사인 금강, 세계적 도로 업체로 성장한 고려화학, 완벽주의로 건설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금강종합건설까지 KCC는 남다른 미래 도전정신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주)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http://www.kccworld.co.kr

성적 저하로 침체된 본교 체육부의 위상을 재고하고 운동부의 재기를 위한 다각책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 우리 이제 다시 비상을 준비한다

### 학교·학생·선수 함께 뛰어야 우승이 보인다

## 학교지원·학생관심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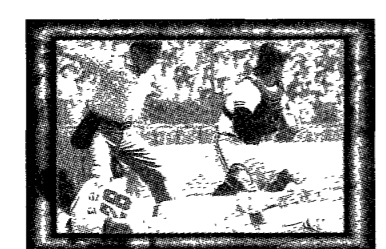
“우와와 우와와 우와와 우와와 우리 동네 남산코끼리~”

1950년대 럭비계 정상, 85년 대학연맹농구대회 우승, 80년대 동대 야구의 전성기 그리고 96년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우승의 순간까지 동대응원가는 운동장, 학교를, 동문들의 가슴을 울렸다. 동문, 교직원,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었던 그 화려한 우승의 순간 과연 동국인은 동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됐으며 동국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랐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대학구성원들을 결집시켜주고 또한 대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었던 학내 스포츠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대학구성원들의 관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고 있다. 과거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곧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적인 목소리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 체육부는 야구부 33명, 축구부 30명, 농구부 17명의 학생선수들로 총 80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다. 급강관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야구부는 일산야구장, 축구부는 대운동장, 농구부는 체육관에서 오전부터 밤까지 연습을 하고 일년에 고작 2달의 휴식기를 갖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이러한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체육부는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없는 것인가? 체육부 발전의 걸림돌은 과연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수선수 스카우트의 어려움이 지적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교 체육부는 제반시설이 타대학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상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스카우트에 있어 프로팀들과의 재정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이다. 우수선수 확보가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단초에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다 행정요원이 부족해 체육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체육실 백우석 실장은 “현재 체육부는 체육실

장, 체육부장, 체육부 계장, 감독 3명, 코치 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인원으로 3종목의 80여명 학생선수를 일일이 지도하고 경기출전에 따른 부대준비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토로한다. 개개인의 노력으로 일당백의 몫을 다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체육부에 요구하기에 앞서 학교 당국이 능동적으로 교직원들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내 교직원과 일반 학생들의 무관심과 선입견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다. 선수들은 오늘도 땀을 흘리며 강의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학교를 위해 뛰고 있지만 학생들은 운동-학-무지라는 선입견과 무관심으로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이 공부를 하듯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름다운 노동이다. 이를 따듯한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는 것이 따뜻한 이를 바라보는 자의 태도일 것이다.

해태 타이거즈의 이강철, 송진우(한화 이글스), 월드컵 축구대표 이상현, 농구의 서대성(삼성), 이호근(현대) 선수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프로세계의 기라성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가 본교입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의 전성기를 위해 처음처럼 뜨겁게 선수들과 학교와 학생의 삼위일체적 노력이 이러한 학내 운동팀들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지름길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몰래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가슴으로 박수를 보내고, 우승할 때 어깨 올리고 있는 선수들을 보며 다시한번 갈채를 보낼 날을 기대해 본다.

오인택 기자

장, 체육부장, 체육부 계장, 감독 3명, 코치 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인원으로 3종목의 80여명 학생선수를 일일이 지도하고 경기출전에 따른 부대준비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토로한다. 개개인의 노력으로 일당백의 몫을 다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체육부에 요구하기에 앞서 학교 당국이 능동적으로 교직원들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내 교직원과 일반 학생들의 무관심과 선입견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다. 선수들은 오늘도 땀을 흘리며 강의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학교를 위해 뛰고 있지만 학생들은 운동-학-무지라는 선입견과 무관심으로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이 공부를 하듯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름다운 노동이다. 이를 따듯한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는 것이 따뜻한 이를 바라보는 자의 태도일 것이다.

해태 타이거즈의 이강철, 송진우(한화 이글스), 월드컵 축구대표 이상현, 농구의 서대성(삼성), 이호근(현대) 선수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프로세계의 기라성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가 본교입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의 전성기를 위해 처음처럼 뜨겁게 선수들과 학교와 학생의 삼위일체적 노력이 이러한 학내 운동팀들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지름길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몰래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가슴으로 박수를 보내고, 우승할 때 어깨 올리고 있는 선수들을 보며 다시한번 갈채를 보낼 날을 기대해 본다.

오인택 기자

## 박준희(체교 2) 선수를 만나 단·무·지 스포츠인?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뻘지도 더하지도 말고 느낀 그대로 써주세요”

인사를 하고 헤어질 기자에게 달려 온 박준희(체교 2)군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석양빛은 받아 푸른 색으로 빛나는 체육관으로 걸어갔다. 동행취재 요청을 받고 긴장이 돼서 잠을 설치다는 박준희군은 22일 오전, 약속시간이 10분여 지난 8시 50분 금강관(체육부 숙소) 앞에 나타났다.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느라 늦었다는 그의 손에는 두터운 서류봉투가 들려있었다. “한학기 경기와 훈련기간을 제외하면 4주 수업을 들어가도 빠듯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끝나 시간이 있을 때 수업도 찾아보고 교수님께 사주기도 제출하죠”

이런 부지런한 덕분에 박군은 아직까지 F를 받아 본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은 제대로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박군이 경기장과 트레이닝실에서 보낸 석달 동안 강의시간이 모두 변경된 탓이었다. 결국 박군은 기자에게 하루를 통째로 불려 줬지만 긴 21년 야구인생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이 야구를 그만둔 후 주위의 권고에 의해 야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나 주위의 부추김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부수 박준희’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야구를 자신의 삶에 주춧돌로 삼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글쎄요. 하루에 담배 세네 개피 외에 외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술, 담배, 여자친구 등 20대 대학생이면 한번쯤 빠져 볼 유행 또한 그는 한번도 즐겨본 적이 없다고. “좋은 길을 알면서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저는 야구선수이고 선수가 자신의 운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한다는 일은 옳지 않아요. 그런걸 알면서 어떻게 호기심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 도중 그의 선배들이 살짝 알려주는 그의 단점도 역시 ‘야구밖에 모르는 놈’ 인걸 보면 그가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틀림없는 듯 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투수로서의 꿈 외에 나름의 목표가 있었다.

“운동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이성적으로 많이 자신을 타이르기도 하고 이것 저것 배워보고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후배들의 좋은 스승도 되고 싶어요. 운동이든 삶이든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해 주는 지도자 말예요”

일상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자연스런 포즈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어머니가 해준 목걸이와 관중상과 후배들이 해준 반지를 항상 지니는, 181cm의 키에 76kg 몸무게에 비해 너무도 순수한 미소를 갖고 있는 21살 청년이었다.

그의 노력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팀웍으로 살아나 우승이라는 듣기에도 환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날을, 우승깃발 아래 동대 마크를 달고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신문과 TV에서 볼 수 있기를 노골이 지는 체육관 앞에서 기대해 본다.

최진 기자

## 감독인터뷰

### 동국 야구의 신바람 “애교심으로 시작합니다”



한대학 야구감독

모교에 대한 애정 때문에 주니치 드래곤스의 코치연수까지 뿌리치고 본교 야구부를 선택했다는 한대학 감독.

본교 야구부의 침체에 한방의 훈련을 넣려,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 4강과 춘계대학야구리그 8강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한대학 감독은 어느 학생선수보다 주목받는 본교 야구팀 감독이다.

“뛰어난 지도력은 뭐... 선수들이 잘 따라 주어서 그렇지” 팀의 성과를 선수들에게 돌리는 한감독은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인간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다. 선수들 개개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오도록 지시해 선수들이 적어온 개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선수들과의 많은 대화를 갖는다고 한다.

그가 밝히는 특별한지 않은 지도법이던 선수들의 고민을 듣고 내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선수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감독의 자리를 지키는 그이지만 정작 경기

가 시작되면 그는 선수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아직 정식 감독자격증이 없어서 적어도 자격증 시험이 있는 7월까지의 시합중에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중석에서 무전기로 작전을 지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주는 학생선수들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한 감독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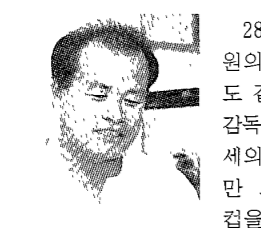
그런 선수들 덕분에 한감독은 감독 자격증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수들을 독려할 수 있는 동국 구성원들의 관심과 격려가 몹시 아깝다고 한다. “시합을 할 때나 연습을 할 때 학생들과 동문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학생들이나 동문들이 야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남대철 기자

생을 살아 온 김감독의 마음을 알았는지 감독의 발에 잘 따라다녀며 흐뭇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한다. “올 해 목표요? 우승이죠. 현재는 진행중인 춘계 대학연맹전 우승이고 다음엔 다음 대학의 우승이요”

학생선수들이 일심동체로 학교의 명예를 위해 뛰려면 우승은 자신 있다는 김감독은 그간 축구팀이 어느정도 성장세를 보였을지라도 학내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학생선수들이지만 학생, 학교, 선수가 함께 될 때 완전한 승리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축구부, 오랜 시간 지난 뒤에 98 그날의 축구부, 그날의 감독이 학생들 사이에서 불굴의 팀으로 회자되길 기대해 본다. 최진 기자

### 노익장 과시 열정과 감독 “목표는 우승입니다”



김승기 축구감독

28명 축구부원의 아버지와 같은 김승기 감독은 올해 51세의 고령이지만 프랑스월드컵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며 힘차게 웃어 보이는 열정파이다.

본교에 69년도에 입학해 70년 대학선수권대회에서 축구가 우승할 당시 센터로 활약했던 김감독은 73년 졸업과 더불어 한일은행 실업팀에 입단해 근래에는 동 실업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본교

감독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1년 4개월 전에 본교로 다시 입학(?)하게 됐다.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죠. 그간 모교 축구가 침체돼 있어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다시 와서 동고동락하게 되니 기쁘기도 하구요”

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1년여 기간동안 김감독이 학생선수들 지도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였다고 한다. “여자로 해서도 안돼요. ‘쓸데없어 되니까’ 하는 감정으로서는 최고가 될 수 없죠. 운동을 즐기고 운동을 기다리는 마음이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학생선수들이, 축구가 곧 삶인 축구인

구부 선배·동문간의 모임을 만들어 이리저리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겹게 농구부의 자리매김을 위해 전력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학생시절에 비추어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몹시 아깝다고 한다. “우리때는 정말 멋졌어요. 백상원등단부터 일반학생들까지 모두 달려와 관중석을 매웠죠. 그런 정말 운동하는 맛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떤 경기나 맥이 빠지거든요”

그러나 최감독은 인터뷰가 끝나가 무섭게 다시금 어깨를 펴고 할 일이 있다며 바빠 사라졌다. 젊은 감독이 이끄는 젊은 선수들, 젊은 동국대학교에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경기와 하나된 응원만이 속재로 남은 것이다.

최진 기자

### 코치 없이 팀관리 척척 “준비 다 돼 갑니다”



최성호 농구감독

“내년에는 완성도있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코치도 없이 92년에서 95년까지 선수를 선발하지 못한 최성호 감독은 나뉘는 팀을 이끌고 있다.

나야만 팀이 재정비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팀은 공백기간을 메우지 4년째입니다. 그래도 좋은 선수를 덕분에 시간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9학번으로 2학년때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던 최감독은 졸업후 상무와 양정초등학교를 거쳐 29세의 젊은 나이로 본교로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무보수로 시작했어요. 그냥 도움이 될까해서, 그러다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됐죠. 임명장 받는데 벌써 5.6년 됐네요” 코치없이 팀을 이끈다는 것이 학생선수들에게 악영향으로 작용될까봐 우려가 많이 된다는 최감독은 학생선수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한다면서 농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MSU) 교환학생 선발

1. 선발분야 및 인원
  - 가. 선발분야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개설 전학파.
  - 나. 선발인원 : 5명(학부).
2. 지원자격
  - 가.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
  - 나. 평균평점 3.0점 이상인 자.
  - 다. TOEFL 550점 이상 취득자.
3. 파견기간 : 98. 9. - 99. 8.(1년간)
4. 파견조건
  - 가. 본교
  -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 재학생 신분유지하여야 함(본교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 파견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이수과목, 성적, 학점)인정 - 졸업학점의 1/4범위내.
  - 나. 미시간주립대학
    - 1) 수업료 : 학점당 약 200달러
    - 2) 기숙사비 : 학기당 약 2천달러
5.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 나. 재학증명서 1통
  - 다. 성적증명서 1통
  - 라. TOEFL 성적표(550점 이상)
6. 선발방법(공개시험전형)
  - 가. 학교성적(20%)
  - 나. 1차 - 영어시험(필기 20%, 회화 20%)
  - 다. 2차 - 면접(40%)
7. 전형일정(서류·경주 동일)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98. 5. 20(수) ~ 5. 28(목)
  - 서울캠퍼스 - 학술교류부(본관 2층)
  - 경주캠퍼스 - 학술연구부
  - 나. 시험일 및 장소 : 98. 6. 2(화) 13:00~
  - C 105(본관)
- ※ 경주캠퍼스 : 원서 접수 결과는 서울 학술교류부로 일괄 제출 바라며, 선발시험 및 면접은 서울캠퍼스에서 일괄 실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28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교류처장

### 중국 남경대학 교환학생 선발

1. 선발분야 및 인원
  - 가. 선발분야 : 중국 남경대학 개설 전학파
  - 나. 선발인원 : 2명(학부).
2. 지원자격
  - 가.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
  - 나. 평균평점 3.0점 이상인 자.
  - 다. 중국어에 능통한 자.
3. 파견기간 : 98. 9. - 99. 8.(1년간)
4. 파견조건
  - 가. 본교
  -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 재학생 신분유지하여야 함(본교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 파견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이수과목, 성적, 학점)인정 - 졸업학점의 1/4범위내.
  - 나. 남경대학
    - 1) 등록금 및 기숙사비 10% 면제.
5.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 학술교류부(본관 2층)
  - 나. 재학증명서 1통
  - 다. 성적증명서 1통
6. 선발방법
  - 가. 학교성적(20%)
  - 나. 1차 - 중국어 시험(필기 20%, 회화 20%)
  - 다. 2차 - 면접(40%)
7. 전형일정(서류·경주 동일)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98. 5. 20(수) ~ 5. 28(목)
  - 서울캠퍼스 - 학술교류부(본관 2층)
  - 경주캠퍼스 - 학술연구부
  - 나. 시험일 및 장소 : 98. 6. 2(화) 13:00~
  - C 105(본관)
- ※ 경주캠퍼스 : 원서 접수 결과는 서울 학술교류부로 일괄 제출 바라며, 선발시험 및 면접은 서울캠퍼스에서 일괄 실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28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교류처장



### 영상매체비평

광고편

조연들의 주연시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가야 성공한다"



전원주씨를 등장시켜 성공적 고정관념 피고  
를 이룬 데이콤 터치터치 002 광고.

10만 이상의 청바지를 입는 여대생에 최  
신형 스포츠카를 모는 남학생에 이르기까  
지 한국의 거품은 10대에서 대학, 일반 직  
장인까지 폭넓게 확산되었다. 거품의 사회  
는 철저한 모방의 사회화이다. TV나 CF에  
서 유명모델이 입고 나온 옷을 입는 모방,  
광고에서 번지르르하게 치장된 브랜드를  
등경하는 심리. 이것이 바로 수억대의 모  
델을 필요로 하는 광고시장이었던 것이다.  
심리학에 투사하는 것이 있다. 유명인과  
동등해지고 싶은 심리. 자기의 부족함을  
대리 만족하는 심리가 바로 허황된 모방  
심리와 배급주의의 사회가 오고 있는 것  
이다. 이때 브랜드 이미지가 심리적  
우리에 IMF라는 도전이 엄습해왔다.  
우리의 모방심리와 투사심리는 급격히 줄  
어지고 실리주의의 사회가 오고 있는 것  
이다. 이때 브랜드 이미지가 심리적  
우리에 IMF라는 도전이 엄습해왔다.  
우리의 모방심리와 투사심리는 급격히 줄  
어지고 실리주의의 사회가 오고 있는 것  
이다. 이때 브랜드 이미지가 심리적

그것도 70년대 만화주제를 등에 업고,  
그녀의 등장은 이 시대의 많은 것을 대변  
하고 있다.  
첫째, 대형 모델의 이미지를 복사만하던  
소비자들이 이제 그 거품을 빼고 자기의  
주체성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IMF의 도전을 실속이라는 응전으로 우리  
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전원  
주씨의 모델 성공담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연급 배우들이 CF에 성가를 떨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세통신의 이  
재포, 017의 짜장면 배달부 이창명, 018의  
송강호, 대우 냉장고의 안분현, OB라거의  
최종일...  
허황된 브랜드 이미지에 상품가격을 지  
불하기 보다는 그 상품에 내재된 진정한  
가치가 지갑을 열기에는 아무래도 조연  
모델이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원주씨의 등장은 위축되고 쪼그  
라드는 소비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으키고 있다. 피그말리온이란  
그리스왕을 아는가. 그는 상아로 만든 여  
인상을 꼽시오 사랑하였다. 보다 못한 여  
신 아프로디테가 그 상아상에 생명을 불  
어 넣어 아내로 살게 했다. 그래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효과를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  
고 한다. 평생조연에서 해매던 전원주씨도  
저렇게 해내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작고 안생긴 딸린도 뜨는데  
나 정도의 인물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이 IMF시대에 우리에게  
키다리 피그말리온 효과를 주고 있는 것  
이다.  
셋째, 그녀의 등장은 우리에게 고정관념  
의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  
유명모델만이 성공하는 정보통신 CF에  
서 아주 파격적인 캐스팅을...

세련된 음악이 난무하는 광고음악에서  
'장가' 같은 옛날 노래를...  
이 세상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것이다.  
광고에서의 많은 작업은 바로 선택의  
작업이다. 거기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을 선택하는 용기만이 성공할 수 있다.  
IMF시대에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  
다. 부모님이 실직하고 수입이 줄어들어  
학비조차도 어렵고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  
취업경쟁에 가슴에 끼인 돌을 앓고 살고  
있다. 이제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가 아닌가? 고정관념이 깨질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거센 도전도 인간  
은 용적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다. 전원주씨의 CF는 우리에게 말  
하고 있다. 화이팅!  
김태홍  
서울광고기획 국장

### 자아수식 래인수식

학교 안에서

진지 드셨습니까?

본교 동아리 '탈'의 마당극 공연.  
마당극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민중  
과 더 가까이 호흡한다는 기조로 공  
동제작된 이번 공연은 경제위기 시  
대의 고민 세상을 사는 아버지와 아  
들, 가족 얘기를 다루었다.  
오는 27일 4시반, 불상연에서.

학교 밖에서

98 자유

96년 6월  
한국 대중음  
악사상 최대  
사건인 김현  
성 음반 사  
점심의 철회  
를 기념하는  
공연. 김중  
서·안치  
환·윤도현  
등 라이브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정  
상급 대중음악가들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98 자유'에는 마루, 허락지엔  
드 등 언더그라운드 록밴드가 대거  
참여해 실험적이고 개성이 강한 그  
들의 음악을 선보인다.  
29일 오후 7시, 30·31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9석 3  
만5천원, A석 2만5천원, B석 1만5천원.  
문의 338-6424

춘천국제마임축제

올해 춘천 국제마임축제의 주제는  
"호수가 발하는 도깨비 난장-꿈을  
로 여는 자유". '도깨비난장'은 예술  
과 낭만과 제가 함께 어울려 음  
주·가무로 며칠밤을 꿈은이들과 함께  
지새우던 고유의 축제 정신을 되살  
린다.  
도깨비 춤추듯 소리와 짓거리와  
빛과 영혼의 난장을 펼쳐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을 겨냥해 온 우  
리의 놀이 정신을 되찾을 것.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극장공연은  
유료. 도깨비 난장은 무료공연.  
문의 (0361) 242-0585

남북공동시선

최초로 남북한 사진작가들이 함께  
서울, 평양에서의 작품전시회를 공동  
추진했다.  
전시회 주제는 '백두에서 한라까  
지 렌즈로 본 조국'. 북한의 유명작  
가 김용남, 리춘, 리성일 등의 백두  
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등 회귀  
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예술  
의전당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문의 785-2700

# 동국문학, '한국문단의 중심'

## 동국문학상 제정·동국시집 발간으로 전통 이어가 한국문학 발전·후배양성에 힘써

문인배출 1위! 지난해 중앙일보가 실시한 '97 전국대학평가 중 본교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평가이다. 비단 국어국문학과 출신만이 인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재래, 신경림, 정재봉, 김문수, 황석영, 박재천, 문정희, 유하... 현재 활약하고 있는 문인들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뿐인가. 미당 서경주 선생을 비롯 한용운, 무예 양주동, 이병주, 조지훈, 정지용, 김기림 등 당대의 석학과 걸출한 문인들도 모두 본교 출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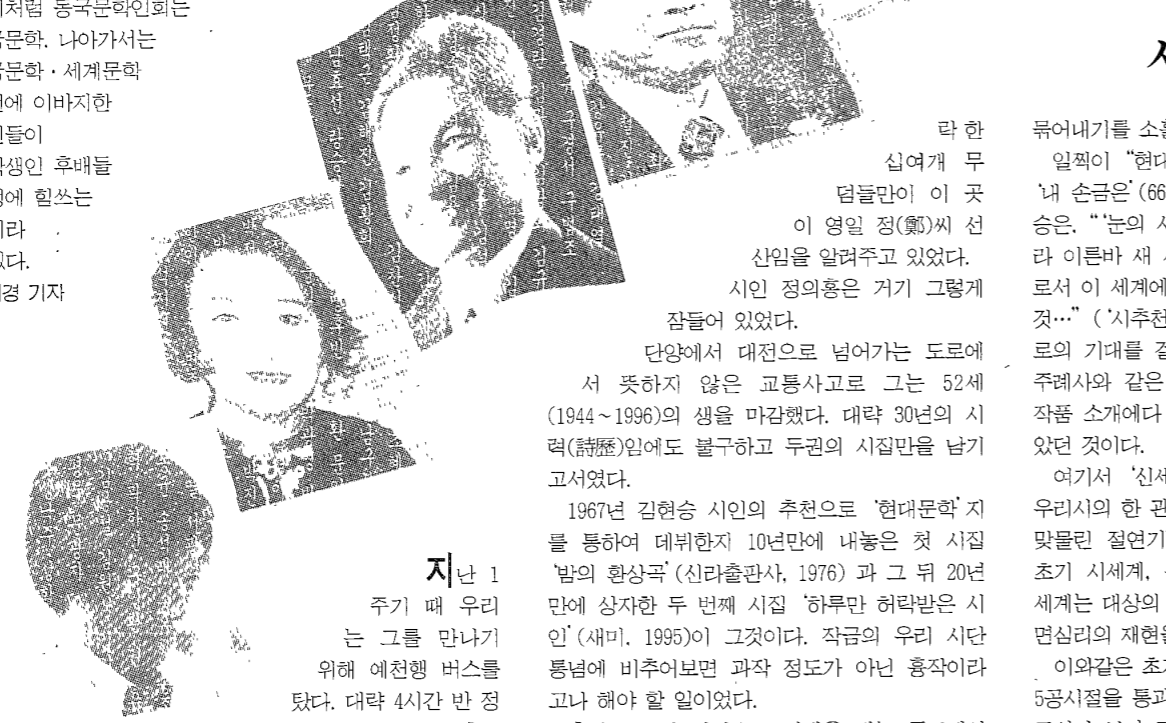
이러한 동국문학인 전체를 포용하는 단체가 바로 1970년에 결성된 동국문학인회이다. 본교 출신 문인들의 순수 친목단체인 동국문학인회는 동국문학 전통계승과 재학생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단에 등단한 동국인이면 누구나 자동 회원이 되며, 현재 시·소설·극문학·평론 등 각계 문학분야에 걸쳐 5백여명의 본교 출신 문인이 등록돼 있다.

동국문학인회는 매년 크게 두가지 사업을 펼친다. 그 하나가 '동국문학상'. 동국문학인회는 지난 1987년 '동국문학상'을 제정하여 동국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문인들을 선정, 시상한다. 매년초 동국문학인회 회장단과 교문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2~3명의 문인이 상을 받는다. 그동안 신경림, 김문수, 조재래, 박재천, 이상문, 정재봉, 이원규, 홍인선 등이 수상했으며 올해 12번째 동국문학상 수상자로는 고 정의홍 시인과 호영송 소설가가 선정됐다.

동국문학인회 활동 중 다른 하나는 바로 '동국시집'을 제작하는 일이다. 올해는 '동국시집 21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집에는 현역 문인들의 시는 물론 재학생들의 시도 함께 수록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에서 진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여름 창작교실'에도 적극 참여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창작의지를 불태우게 한다.

이처럼 동국문학인회는 동국문학, 나아가서는 한국문학·세계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문인들이 재학생인 후배들 양성에 힘쓰는 곳이라 하겠다.

김미경 기자



12회 동국문학상 수상자 고( )정의홍 시인

## 새시대 지적 풍모 지닌 '소년' 시인

묵어네기를 소유했던 게 했을 뿐이었다.  
"일찍이 '현대문학'지에 '나의 습작'(65년2월) '내 손글' (66년11월) 등의 작품을 추천한 김현성은, '눈의 서곡'은 1.2회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이른바 새 시대의 지적풍모를 간직한 작품으로서 이 세계에서의 정근(鄭君)의 성공을 보여준 것..." (시추천기) 이라고 정의홍 시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다. 비록 시추천기간 일종의 주재사와 같은 성격의 글이지만 김현성은 작품 소개에 이렇게 상당한 찬사까지 얹어 놓았던 것이다.  
여기서 '신체대의 지적 풍모'란 60년대 무렵 우리시의 한 관습이던 내면정황의 표출이나 이와 맞물린 절연기법을 지칭한 것이었다. 정의홍의 초기 시세계, 특히 시집 '밤의 환상곡'에 담긴 세계는 대상의 오브제화나 절연기법을 동원한 내면심리의 재현을 주된 것이었다.  
이와같은 초기 시세계는 7~80년대 유신체제와 5공시절을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적 조사가 보다 간결·적절해지면서 문체적 현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나 인생론적 진술위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유명한 동아일보 광고 사태때 정의홍은 여자상업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진학지도 보다는 학생들의 성공을 모아 광고란 매우기에 더 열심이었다. 경성도 그것도 읍내에서는 중국음식점을 볼 수 없었던 이나라 유일의 고장인 예천네가답게 '비록 자유는 없지만/헛된 것에는 눈을 주지 않는다/정의민이 민주



고(故) 정의홍 시인 (1944. 5. 17~1996. 4. 19)

홍신선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메아리

### 대학

▲교수들의 영원한 이상, 대학. 쫓겨간 학교생활과 선생님의 구지람, 부모님의 핀잔에도 그들이 곳곳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들에게 '대학'이라는 꿈이 있기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난 무한의 자유를 꿈꾸며, 묘진 겨울이 지난 후 찾아오는 봄날처럼

화사하고 따사로운 낭만을 그리다. 그들에게 대학은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환상이며 파라다이스이다. ▲국어사전을 대학을 '학술 연구 및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라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학문의 살아있는'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학생=지성인'이라는 도식에 고개를 끄덕인다. 교수는 존경의 대상이며 사회적으로 '꽤 중요한'

역할수행자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은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에 사회발전이 크나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그만큼 대학은 속세의 더러운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역인 것이다.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말이다. ▲지금의 대학은 어떠한가.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은 이 나라가 어쩌면

보다는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자기자리찾기에 바쁘다. 대학 행정자들은 말로만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을 외치고 있으며, 학제개편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돈줄레니 이렇게 하라' 하면 아무것도 모른채 그렇게 따라간다. ▲고로 대학은 죽었다. 김용환 취재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고

△수하르토는 미국의 모르모토
△그 나뭇잎에 그 허비비
△우리나라 학생들!
△협명 수출하자! IMF시대인데,
△수하르토와 박정희
△그들의 강한 카리스마
△덕분에 국민고생하는군.
△혁명 광주, 혁명의 깃발
△인도네시아!
△소나기는 피해기라
△경제파탄 수하르토 즉각 퇴진! 경제파탄 비리주변 03
구속!

△틸대로 되라 욕속!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전철을 밟는 것
같은요. 힘내세요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수하르토 나오라, 나오라!
△인도네시아 사태 맞이한 청년들
힘내세요.
△잘 모르는데 사태라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 죽이는 거치고 안 나쁜 거
없잖아요
△5.18이 생각납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학생들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들 분노 사서 안망하는 곳 못 봤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결과가 나쁜 걸 보니 이유도...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은 이제 더 이상 어느 곳에서
환영받지 못 합니다.
△합없는 사람 당하는 건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군.
△인도네시아 대통령! 있을 때 잘하지.
△가야할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난리도 안
생기게 한다.
△총선도 필요 없다 그냥 물러나라.
△인도네시아 GDP의 약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수하르토일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가 온전하길
바라겠는가?
△용감한 3형제 큰형 김일성, 작은 형
전두환, 막내 수하르토 힘내라! 힘 내버려
안 남았어.
△법대로해 법대로.
△수하르토 대통령 수하(手下)사람들이!
나라 망친 그를 배신해 버려라!

“예비 선생님 됐어요”
아이들과 울고 웃은 한달

과연 내가 우리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혹은 설명하다가 막히면 어떡하나? 학교로 향하며 교생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상견례가 있는 후, 담임반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내 소개를 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게 될 교생선생님이라고 간단히 덧붙였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서보이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히 쑥스러웠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내 소개를 했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는 느낌이 든다. 교생실습 첫 주는 학교 적응기간이기 때문에 수업은 하지 않고 수업참관만 했다. 수업 참관을 하며 프로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방식이나 노하우를 배우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다. 수업참관은 매우

소비문화로 얼룩진 대동제
전통·인습 구별해 계승해야

큰 이변없이 대동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막이 올랐다. 3년째 맞이한 대동제다. 1학년 때의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이 대학의 축제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더 이상은 없다. 매년 대동제는 5.18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의 5.18기념식은 더욱 절망적이다. 선언문낭독에 동참한 이들은 몇에 불과하고 매년 그렇듯 그들만의 행사라고 여긴다. 하지만 학교안은 물론 학교 밖까지 장거리를 방불케 한다. 그에 따라 소비도 많다. 소비가 빚어낸 낭비, 곳곳에 쓰레기들, 무엇보다 대동제는 그저 즐기는 거라는 막연한 우리의 생각. 대동제는 물론 우리학교에서 추구하는 만큼 우리들의 행사이다. 우리는 대동제를 하게되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물음에 책임져야 한다. 대학 축제 속에서의 상업문화를 저양하고 대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려는 진실한 움직임이 보여야만 하는 것이다. 계속되어온 대동제의 인습들, 혹은 그것을 전통이라 여기고 있던 양을까? 분명 인습은 전통과 구별된다. 대학인은 잘못된 인습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때 말로만이 아닌 새로운 대동제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김연숙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좋았지만 수업참관 할 때마다 교실 뒤에서 45분간 서 있어야하는 육체적 힘겨움이 조금 나를 힘들게 했다. 나중에는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선생님이 편서하시는 동안 물레 앉았다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극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교생실습 2주부터는 실제수업에 들어갔다. 실제수업 뿐만 아니라 아침자율학습지도, 조화, 종래, 청소지도 등 담임선생님의 역할까지 시작했다. 실제수업 첫 시간에는 많이 긴장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막상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려니 내가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똑같은 수업을 여러 번에 들어가서 하고, 실제수업을 하니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내 나름대로의 요령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수업시간에 여유가 생기거나 학생들이 장난치고 떠드는 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이를 저지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했다. 내가 맡은 중학교 1학년은 아직까지 초등학교 티를 벗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떠들면 교과서 모서리로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독자사진

동그라미 29th 축제전 출품작



김민희 (사범대 가정교육과)

동문칼럼

대학문화의 시대적 책임성



조영희 (88년 정치외교학과 졸업, 편집인쇄 대표)

대학을 '진리의 성당'이라든가, '시대의 선도자'라고 하면 뉘새나는 한세대의 웃기는 얘기일까. 요즘은 같은 경제난국시대에 대학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사상 최약으로 치달고 재학생의 '예비 실업자'로의 편입이 '강 건너 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은 온 대학을 뒤덮고 있다. 한 때는 '취업대비반' 과정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비판받은 적도 있지만 이 또한 먼 옛날의 팔자 좋은 '음풍농월'이 아니겠는가. 때때로 모교 교정이나 주변을 오가다 보면 왜곡된 놀이문화에 답답한 마음을 가진 때가 있다. 우선 '음풍농화'가 그 하나이다. 기분 전환이나 해방감을 느낀다거나, 젊음의 발산 등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양의 팽창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면에서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어딘가에 의지해야 할 연배라면 더욱 그러하다. 용돈의 주요지출처가 술값계산이라면 술세 참담한 기본이다. 또한 대학 주변의 '이름 난' 주점의 단가표는 일반직장인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대학생을 주고객으로 하는 주점가는 불야성의 성업을 이루고 있다. 얼마전 TV에서는 외국의 어느 대학이 '주취불성'된 상태에서 기물을 부수는 등 광란의 축제를 자랑하는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이 축제는 결국 경찰과 대치하다가 종국에는 경찰이 진압하여 난장판의 축제를 진압시키는 길로 끝나 씁쓸한 결론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게 어찌 남의 일이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술은 더 가까이 한다는데... 남의 일 같지 않다. 대학은 치외법(治外法)적인 문화권역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문화의 본질은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일차적 본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대학문화는 한 시대의 퇴역적 거울이 아니라 선구적인 위치에서 실험·고뇌하며 창조하는데 있다. 대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오며 해방과 6.25, 4.19와 유신독재, 5.18과 군부 무단정체에 짓밟혀오면서도 항상 그 시대의 침묵으로서 민족의 아픔과 국가의 위기를 온몸으로 감내해내고 승화시킨 역력한 전통이 있다. 오늘에 있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고교·실직에 따른 사회적 문화 충격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현실을 제대로 체감해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어찌된 영문일까? 마치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중독 내지는 착란적인 환각현상에 사로잡힌 것일까? 대학 문화가 바로 서야 한 시대가 바로 선다. 시원한 갈로수같은 생명의 물줄기가 대학으로부터 나왔으면 한다.

동대신문 동단어 (9) section containing a cartoon and text about the word '동단어'.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for '월' (Monthl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and corresponding menu items and prices.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for '월' (Monthl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and corresponding menu items and prices.



동대신문

목격담

축하합니다.
△컴퓨터 정보통신 농구 준우승 축하해요.
-공과대·정산대 부회장
△약혼축하해요.
-경영학도 일동
△높은왕 생일 축하해 지냈지만,
-전자 짧은 황
△우리 서기 생일(6.6) 축하해.
-미나미나, KBS
△MIB의 환생 6.6 생일 축하해.
-819
△사과과제의 조지화현 사조지 E.D.P.S의
발대식을 축하드려요.
-SPECIAL GUEST
수고하셨습니다.
△5.18 추모행사에 참가하고 오신 머릿돌
식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머릿돌을 사랑하는 인이
△컴퓨터 정보통신 M.T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과대·정산대 부회장
△정보산업공과부 M.T 준비하시느라 애

쓰신 반대표, 학생회 준비하는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전자와 들린 전기 산행 고생했습니다.
-부공장
그리고...
△사과과, ROCK음악 소모임 Magnman
(마구만)이 5월29일 금요일 학원관 소강
 당에서 늦은 6시30분에 공연을 합니다.
 많이 보러와 주세요.
△지갑을 찾아요! 갈색 아이작 반지갑입
 니다. 가지고 계신분 제발 돌려주세요.
 은에는 꼭 갈색이요. 동국관 M동 수유실
 에 맡겨 주세요.
-경영학부 여학우 울림
△나는 사과과 스타 정재호 팬클럽 회
 원! 아직 좋은 없지만 언젠가는 짝 정은
 이를 제치고 새로운 짝에 임명될 것임!
-여는 사과연 960
△'한인누리'교재 무료로 드립니다. 특이
 +트플+테이프.
-사과97 인은은
△SIV엔 클럽 결성 51일 축하.
-회장 백
△재호 오빠 사랑해요.
-편이
△만 스텐의 잔인한 5월은 지났다.
-L

△뽕뽕! 재수생이랑 놀면 나랑 이제
 끝이야.
-투덜이 스머프가
△현우야, RT할줄지? 잘 이겨내길 바라.
-사랑하는 Y.A
안방길
축하합니다
△5월 26일 6시 소강당1에서 소리창고
 춘계 정기 공연 있어요. 많이 축하해 주
 세요.
△5월 30일 다우회 18기 이상기, 20기 감
 동국군의 탄생일을 축하.
-17기白
△한의에 해모수! 일석가요제 은상을 축
 하합니다.
-불통과 친구 6066
△NIRX미경, 상향, 동화,연정, 은주, 제원
 성년의날 맞이하여 축하해요.
△5월 25일은 민이와 정이가 만났지 200
 일제 윈데, 마니마니 축하해!
-JOZV
△26일부터 또다시 전시회 축하합니다.
-연제나 짜증만 내는 곰이
△새랑하는 경숙! 5월 28일 너의 생일을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대원일동
△트함사학회 98학번 16기 새내기들 모두
 참석하여 "광란의 바닷가"를.
-14기 T100
수고하셨습니다
△Time식구들 주막하시느라고 고생망았
 습니다.
-이쁜 세연이가
△뜨대론 이야기 전시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미소년
△Impact 3기 아그들이, 축제기간 쉼표라
 깃바 파느라 수고했데이.
-도외주지 못해 역풍에 시달리는 연기가
△중호, 원석, 현우, 용문, 재민, 현희, 은
 주, 인경, 정숙, 정근 수고했다. QUES
 T만세!
-회장 신희철
△수고합니다. 불워 18기 등기들이, 그대
 합들제,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인숙
△동국 TIME인들이여! 축제기간 주막
 일 열심히 해서 고마워.
-윤형&조수
△93 판·정 전주개발팀 수고했습니다!
-원현중호재
알립니다
△영은!!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람을 꿰뚫
 한다.
-좋은친구 YOUNG
△금요일... 드디어 연희의 예인이 오는
 날.
-좋은 친구(G.F) YOUNG
△드디어 관광산업 연구소 개소식을 갖
 습니다.
-연구소 요원 일동
△효일이 형, 연무시범 잘 봤습니다. 너
 무 멋있었어요.
-형을 존경하는 후배가
△일문과 94 준형선배 고마워요. 건강강
 고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학부의 김서영양
 을 사모하고 있음을 일반학우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H.Y